

유교의 靈魂觀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성리학을 중심으로 —

김 수 청**

<차 례>

1. 서론
 2. 영혼관
 3. 영혼관과 죽음관
 4. 내세관
 5. 결론
-

1. 서론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이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문제에까지도 관여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유교는 그 근본목적이 본래 도덕적 인격수양에 치중해 있다보니, 공학이나 과학의 발달, 심지어 개인의 건강문제까지에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이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비 (2002-074-AS1526)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아대학교 철학과 초빙교수 (soo-chung@hanmail.net).

그러나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문제에까지 직접 관련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의 견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정신문화와 유교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유교 가르침 전반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유교가 과학이나 건강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유교에서는 영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체와 영혼과 죽음의 관계가 해명되리라 본다.

『논어』의 다음 구절이 유교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단초이다.

- 1)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 2)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¹⁾

유학자들은 공자의 이 말을 근거로 ‘유교는 귀신이나 죽음 문제보다 현실적 삶의 문제를 더 중시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교 사상은 귀신이나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의 정치와 윤리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고 유교가 귀신이나 죽음 문제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공자는 『논어』에서도 인(仁)과 예(禮)를 중심으로 죽음(死)과 제사(祭)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생(生)과 사(死)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귀신(鬼神)과 더불어 논의하고 있다.

위의 1)과 2)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 1) ‘사람 섬기는 것을 알면, 귀신도 섬길 수 있다’
- 2) ‘삶을 알면, 죽음도 알 수 있다’

1) 『論語』「先進」-11,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死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이렇게 해석해 보면 유교는 삶을 바탕으로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던 것이다.

공자는 제자 안연이 죽자 “아! 슬프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²⁾라고 통곡하였다. 공자는 육체적 죽음을 두고 한 개인의 삶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죽음과 귀신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자는 천(天) 또는 천명(天命)에 대해 외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에 대해 무한한 외경심을 보여줌으로써 천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였다. 공자는 천인관계에 있어서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인정하였다. 공자 이전에 초월적 절대자였던 상제 개념이 자연스럽게 천 개념에 수렴되고, 그것은 다시 인격 속에 내재되었던 것이다.

유교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이며 도덕성과 교육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교의 제사의식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구복(求福)을 위한 것도 아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 충실하자는 것이며, 내세의 삶은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유교의 교육관인 수신도 현세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지, 내세의 안락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³⁾라고 하였듯, 사람은 인격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성취함으로써만 인생의 의미를 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을 당하더라도 도를 참되게 하며”⁴⁾,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⁵⁾고까지 하였다.

공자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관심에서 멀어져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한 대에 와서 왕충은 귀신(鬼神)을 전적으로 부정하였다. 왕충은 귀신에 대해 매우 급진적 성향을 보여,

2) 『論語』「先進」-8, “顏淵死 子曰噫 天喪予 天喪予.”

3) 『論語』「里仁」.

4) 『論語』「泰伯」-13,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5) 『論語』「衛靈公」-9,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귀신은 생각 속의 존재⁶⁾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왕충의 이와 같은 귀신에 대한 인식은 송대 성리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성리학은 귀신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유교와 성리학을 중심으로 먼저 귀신(鬼神)과 혼백(魂魄), 정(精)과 기(氣)와 신(神)에 대해 분석 검토해 보고, 그 다음으로 이들 개념이 영혼관과 죽음관의 형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제사관 및 내세관과의 관계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영혼관

1) 유교에서의 영혼(靈魂)

우리가 사람을 육체적 존재로만 국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영혼과 정신이 사람의 본질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주요 근본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영혼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⁷⁾

영혼에 관한 현대인의 사상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종전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영혼의 반은 물질적인 것이고, 반은 정신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고대 중국인들은 이것을 ‘氣’라고 했다. ‘氣’는 ‘氣’의 원형문자이다. 이것은 구름 같은 것이 뭉개뭉개 떠 올라가는 형상이다. 사람의 호흡 곧 기식(氣息)도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사는 호흡 즉 기식(氣息)의

6) 『論衡』 「死僞」.

7)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41쪽.

유무에 의하여 구별되기 때문에 호흡의 작용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 영혼은 이러한 영력(靈力)이 인체에 머물고 있을 때는 활동할 수 있지만 한 번 사라지면 본체인 기로 환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⁸⁾

본 논문에서는 영혼에 대한 다양한 입장 중에서 유가에서는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예기(禮記)』 「교특성(郊特性)」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정신(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형체(魄)는 땅으로 돌아간다(歸).”⁹⁾ 또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사람이 죽은 것을 귀라 하였는데, 귀는 돌아가는 것이다. 정기는 하늘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¹⁰⁾고 하였다.

육체는 땅 속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 유가의 고대 입장이었다고 보겠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고대 유학에서 또한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존재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있다고 말하려니 효자, 효손들이 부모 살아 계실 때 효도하지 않을까 두렵고,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없다고 말하려니, 불효자가 장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두렵다. 네가 진정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네가 죽은 후 스스로 알게 되어도 늦지 않다.’¹¹⁾

위의 예문은 공자, 즉 유학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임을 여실히 보여

8) 朴屍義, 「고대인의 귀신관과 국문학」, 『인문논집』 제8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67, 9쪽.

9) 『禮記』, 「郊特性」, “魂氣歸於天, 形魄歸於地.”

10) 『韓詩外傳』, “人死曰鬼, 鬼者歸也 精氣歸于天 肉歸于土.”

11) 『說苑』 「辨物」, “子貢問孔子, 死人有知無知也. 孔子曰 吾欲言死者有知也, 恐孝子順孝孫妨, 生以送死也, 欲言無知, 恐不孝子棄不葬祀也, 賜欲知死人有知無知, 死徐自知之, 未爲晚也.”

주는 내용이다. 유학의 주된 관심이 죽음 이후의 영혼 세계보다는 현실적인 삶에 치중해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2) 귀신(鬼神)과 정기(精氣)

성리학에서는 귀신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게 본다. 그들은 귀신을 귀(鬼)와 신(神)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귀(鬼)는 음이고 정적이며, 땅과 관련되어 있다. 신(神)은 양이고 동적이며,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 귀와 신을 주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기(二氣, 陰陽)로 나누어진 것은 곧 일기(一氣)의 운행이다. 이른 바 한번 움직이고(動) 한 번 고요하여(靜) 서로 그(상대의) 뿌리가 되고, 음으로 나누어지고 양으로 나누어져 양의(兩儀)가 서게 되었다. 사람에 있어서 나누어진 것으로 말하면 ‘정(精)’은 음이고, ‘기(氣)’는 양이다. 그러므로 백(魄)은 귀(鬼)가 되고 혼(魂)은 신(神)이 된다. 운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사라지는 것(消)은 음이요, 살아나는 것(息)은 양이 된다. 그러므로 퍼지는 것은 신(神)이고 돌아가는 것은 귀(鬼)이다.¹²⁾

유교에서 인간존재란 하늘과 땅을 벗어나서는 애초부터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다. 그러면서 사람이란 그 하늘과 땅의 작용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것으로 해석하여 이 천지에 부합하는 자존적 생명체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 오행이나 귀신의 의미도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영역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유교 문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¹³⁾

12) 『性理大全』 卷28-9, “朱子曰 二氣之分卽一氣之運, 所謂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者也. 在人者以分言之, 則精爲陰而氣爲陽, 故魄爲鬼而魂爲神. 以運言之, 則消爲陰而息爲陽, 故伸爲神而歸爲鬼”.

13) 조남옥, 「유가 육신관의 심층적 이해」, 『한국민족문화』 제24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239쪽.

하늘과 땅이 있는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뒤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며, 남자 여자가 있는 뒤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가 있는 뒤에 부모 자식이 있다.¹⁴⁾

오직 사람만이 그(음양오행)의 빼어남을 얻어 가장 영험하니 형질이 이미 생김에 정신이 발동하여 알아가고 다섯 본성이 감동하여 선과 악이 나뉘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¹⁵⁾

유교에서는 우주의 생성변화를 기의 음양작용으로 설명한다. 기의 음양작용이 사람으로 응취(凝聚)된 뒤에는 사람을 정(精)과 기(氣)와 신(神)으로 설명한다. 황면제는 이 삼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대개 인간이 생겨난 것은 오직 정(精)과 기(氣)에 의해서이다. 모(毛)·골(骨)·육(肉)·혈(血)이 되는 것은 정(精)이고, 호흡 냉열이 되는 것은 기(氣)이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靈者이며, 나무와 돌이 아니므로 그 정과 그 기에 각각 신(神)이 있지 아니할 수 없다. 정(精)의 신(神)을 백(魄)이라 하고, 기(氣)의 신(神)을 혼(魂)이라고 한다. 귀가 듣고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백(魄)이 하는 일이고,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혼(魂)이 하는 일이다. 백과 혼을 합하면 곧 음양의 신이요, 리(理)가 실제로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 혼백의 가운데 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靜)하면 인의예지의 성(性)이 되고, 동(動)하면 측은 수오 공경 시비하는 정(情)이 된다. 이 모두가 여기에서 나온다.¹⁶⁾

14) 『周易』「序卦」-1, “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15) 周濂溪, 『太極圖說』,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16) 『性理大全』 卷28-18, “勉齋黃氏曰.”

하나의 기(一氣)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분화되어 묘하게 합하고 응해서 인간과 만물이 생성되었다. 이 때 구체적으로 생성작용을 하는 것은 정(精)과 기(氣)이다. 인간도 정과 기가 응취한 것이다. 음의 성질을 가진 정(精)과 양의 성질을 가진 기(氣)로써 인간의 형체와 생명이 형성되었다. 황면제에 의하면 인간을 행동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신(神)이다. 이 신(神)은 정과 기에 비해서 더 정수(精粹)하다. 이 신(神)이 정신작용의 주체이다. 인간과 만물이 음양의 묘합이응(妙合而凝)으로 생성되었는데, 생성물 각각은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기가 응취할 때, 청탁(淸濁)·수박(粹駁)·경중(輕重)·정조(精粗)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의 정수(精粹)한 것은 정신이 되었고, 그 기의 조박(粗駁)한 것은 육체가 되었다.

3) 귀신(鬼神)과 혼백(魂魄)

인간은 정(精)과 기(氣)와 신(神)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精)과 기(氣)에 신(神)이 더해지므로써 사고와 행동이 가능해졌다. 성리학에서는 이처럼 신(神)을 가진 정(精)과 신(神)을 가진 기(氣)를 각각 백(魄)과 혼(魂)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혼백을 지닌 존재이다. 지각운동은 양의 작용이고, 형기육체는 음의 작용이다. 기를 혼이라 하고, 체를 백이라 한다.¹⁷⁾

그렇다면 사람에게 혼백은 어떻게 깃들었을까?

자산(子産)이 사람이 나서 처음 변화하는 것을 백(魄)이라고 하고, 이미 백이 생겨서 양이 된 것을 혼(魂)이라고 했다. 이 말은 역시 성인의 가르침(遺旨)을 진실로 얻은 것이다. 이른바 ‘시화(始化)’는 태(胎) 가운데서 간략하게 사람 모양이 형성될 때이다. 사람이 처음 겨우 기를 얻어서 배태(胚胎) 모양을 형성한 것이 백이다. 이미 백이 이루어지면 곧 점점 움직이게

17) 『性理大全』 卷28-10, “知覺運動陽之爲也, 形體陰之爲也. 氣曰魂, 體曰魄.”

되어 양에 속하게 되는 혼이 된다. 형체가 이루어지면 신(神)이 지(知)를 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각은 혼에 속하고 형체는 백에 속한다. 양은 혼이 되고 음은 백이 된다. 혼이란 것은 양의 영(靈)이고, 기의 영(英)이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영(靈)이며 체(體)의 정(精)이다.

즉 입과 코로 호흡하는 것은 기이지만, 신령스러운 것은 곧 혼에 속하고, 보고 듣는 것은 체인데 그 총명한 것은 백에 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¹⁸⁾

사람은 정기와 혼백이 합하여 이루어졌다. 사람은 정기로 형성되어 혼백으로 기능한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정신은 혼과 백 양쪽에 걸쳐져 있다. 정은 백이고 신은 혼이다. 또한 혼은 열이고 백은 넓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혼백은 기의 음양과 귀신의 소산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하나의 기로 돌아간다.

귀신과 혼백은 어떤 관계인가?

혼백은 사람을 설명할 때 사고와 행동의 측면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주체는 혼백이다. 한편 귀신은 사람을 설명할 때 좀더 포괄적 기능의 측면을 말한 것이다. 감각과 사유도 굴신왕래 작용이며, 이것도 귀신으로 설명된다. 태어나고(生) 죽는 것(死)도 굴신왕래 작용이며, 이것도 귀신으로 설명된다.

사람의 행동은 모두 굴신(屈伸) 작용이다. 크게는 삶과 죽음도 굴신 작용이고, 작게는 앉고 서는 것도 굴신작용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모두 굴신작용이다.

18) 『性理大全』 卷28-20.

3. 영혼관과 죽음관

1) 생사(生死)와 기의 취산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공자가 말한 “생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한 말은 “생을 알면 죽음은 저절로 알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공자의 이 말에 의하면 생이나 사나 결국은 하나의 이치이지 별개의 이치가 아니다. 정이(程頤)는 ‘죽음의 일이 곧 생의 일이니, 다시 다른 이치가 없다’¹⁹⁾라고 했다. 생이 규명된다면 사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겨난다는 것은 곧 기가 응취(凝聚)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은 그 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빼어난 기가 응취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응취한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가리켜 동일한 이치라고 한 것이다. 즉 생사란 기의 응취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자는

기(氣)가 응취하면 (만물이) 생겨나고 기가 흩어지면 (만물이) 죽는다.²⁰⁾

라고 하였다.

정기도 마찬가지로

대개 만물이 화합하여 교감하면 생하고, 흩어져서 화합하지 아니하면 죽는다.²¹⁾

라고 하였다.

사람은 기를 가지고 있다. 그 기는 정(精)과 기(氣)와 신(神)으로 설

19) 『性理大全』 卷28-37, “死之事即生是也, 更無別理.”

20) 『性理大全』 卷28-38, “朱子曰 氣聚則生, 氣散則死.”

21) 『性理大全』 卷28-37, “凡物參和交感則生, 離散不和則死.”

명되는데, 그 기능으로 말하면 혼백(魂魄)이다. 이것들은 기가 다할 때까지 사람 속에서 존속하다가 사람의 기가 다하게 되면 혼은 양으로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음으로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혼백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고 한다. 죽는다는 것은 기의 차원에서 보면 흩어지는 것일 따름이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게 마련이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처럼 영혼이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혼은 뭉쳐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며, 백도 뭉쳐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혼백은 흩어져서 각각 하늘과 땅으로 가는 것이므로 개체는 없어진다. 사람이 생겨날 때도 이미 있었던 혼과 백이 집합하는 것은 아니다. 혼백이 생전에 이미 있지도 않았거니와, 죽음에 이르러 흩어진 혼백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기가 응취(凝聚)하면서 정과 기가 되고, 여기에 신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신이 분리되어 흩어지고, 다음에 기와정이 본래 하나의 기(원일기)로 흩어져, 개체로써 한 사람은 영원히 없어진다. 그러나 기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생긴다 없어진다’ 또는 ‘온다 간다’는 것은 개체로써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기는 흩어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담연청허(潭然淸虛)한 기는 상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이는

합하여 생기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다. 다하여 죽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기(精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혼(形魂)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간다고 하는 것도 괜참을 것이다.²²⁾

라고 하였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있는 어떤 존재자가

22) 『性理大全』 卷28-37, “合而生非來也, 盡而死非往也. 然而精氣歸於天, 形魂歸於地, 謂之往亦可矣.”

저편에 있다가 이 편으로 오거나 또는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 이 것은 흔히 말하는 천당으로 간다거나, 이승으로 온다는 불멸설과는 다르다. 개체로써 한 사람의 기가 일단 흩어지면 흩어진 기는 그 개체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없던 데서 생겨나고 있던 데서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모여서 생겨나거나 흩어져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 그러한 이치 곧 리(理)이다. 이 리를 조물주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自理)’라고도 표현한다. 리는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리(이치)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유무로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원리의 세계이다.

만물이 생기고 죽는 것은 리(理)에 근거한다. 리라는 것은 만물의 곧고 바른 것이다. 생기는 것은 응취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니 있다(有)고 하고, 죽는 것은 흩어져 볼 수 없으니 없다(無)고 한다. 보이는 것은 만물의 형체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리는 일찍이 없는 것이 아니다.²³⁾

2) 귀신과 제사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을 보았다 못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의 귀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돌아간 조상의 귀신이 생전의 조상과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사람과 동일성을 갖는 귀신은 없다. 귀신의 존재는 대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일 뿐이다. 만약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 작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23) 『性理大全』 卷28-37, 38.

것이다. 이것을 정이는 ‘안병’(眼病)²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응취한 기가 흠어지는데 있어서 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응취되었던 개체의 기가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간혹 바로 흠어지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뭉친 상태로 존속하는 것도 있다.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례는 아니며 오래지 않아 모두 흠어져 하나의 기로 되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귀신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없다. 이 문제를 주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厲라는 귀신이 되었다고 하는 伯有의 사건에 대하여 이것은 다른 하나의 이치이다.) 사람이 병들어 끝내 죽으면 그 기는 흠어진다. (그러나) 때로 형을 당하거나 또는 갑자기 죽은 자는 응취된 기가 아직 흠어지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끝내는 흠어진다. … 사람이 죽으면 그 기가 흠어지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常理)이다.²⁵⁾

사람의 기가 흠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완급의 차이에 따라서 죽은 뒤에도 일정기간 미쳐 다 흠어지지 아니하고 뭉친 채 존속하는 것은 있다. 이 기가 완전히 흠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귀신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불멸성까지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기의 취산과 굴신의 원리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한 개체로서의 사람과 동일성을 가지는 항존적 귀신은 없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담연한 기와 취산의 이치일 뿐이다.

이것은 제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나 귀신은 없다. 선조의 기가 응취한 것이 광대하고 많아서 흠어지는데

24) 『二程全書』卷37-27, “伊川以爲若是人傳必不足信, 若是親見容是眼病.”

25) 『性理大全』卷28-11, “(問伯有之事, 別是一理如何) 曰 是別一理. 人之所以病而終盡則其氣散矣. 或遭刑或忽然而死者, 氣猶聚而未散, 然亦終於一散矣.”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흩어져 산화(散化)하게 되어 있다. 공자가 제사지낼 때 ‘조상이 계시는 것 같이’ 지내라고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지내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주자의 제자도 이것이 의문스러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성(性)은 곧 리(理)입니다. 그것을 취산으로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응취하면 생기고 흩어지면 죽는 것은 기일 뿐입니다. 이른바 정신 혼백 지각이 있는 것은 기입니다. 그러므로 응취하면 있고 흩어지면 없습니다. 리는 고금을 통해 항상 존재하며 다시 취산하고 소장하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주자는

오직 이 천지 음양의 기는 사람과 만물이 모두 얻는 것이다.(그래서) 뭉치면 사람이 되고 흩어지면 귀가 된다. 그러나 그 기는 비록 이미 흩어졌다 하더라도 이 천지 음양의 리는 생생하여 없어지지 아니한다. 조상의 정신과 영혼은 비록 이미 흩어졌다 하더라도, 자손의 정신과 혼백은 자연 여기 있으니 조금은 서로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제사의 예를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지내면 (자손에게 내재해 있는) 조상의 혼백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미 흩어져 조금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성과 공경을 능히 다하면 감응하여 이르게 된다. 또한 이 리가 다만 항상 이 가운데 있는 이유이다.²⁶⁾

26) 『性理大全』卷28-26, 27, “問性卽理, 不可以聚散言. 聚而生散而死者, 氣而已. 所謂精神魂魄有知有覺者, 氣也. 故聚則有, 散則無. 若理則亘古今常存, 不復有聚散消長也.” “曰: 只是這個天地陰陽之氣, 人與萬物皆得之氣. 聚則爲人, 散則爲鬼, 然其氣雖已散, 這個天地陰陽之理, 生生而不窮, 祖考之精神魂魄雖已散, 而子孫之精神魂魄自有此小相屬, 故祭祀之禮盡其誠敬. 便可以致得祖考之魂魄. 這個自是難說, 看既散後一似都無了. 能盡其誠敬便有感格, 亦然是理常只在這裏也.”

라고 대답하였다. 조상의 기는 분명히 흠어져 없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는 항상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지내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음양의 기는 굴신을 되풀이한다. 굴신하되 그 근본 방향은 생생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생생하여 그치지 않고 작용하는 것은 기이지만 그 근본 원리는 리이다. 이 이치(理)는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조상은 가고 그 조상의 혼백도 사라졌으나, 그의 자손은 생생하여 그치지 않는 이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자손의 정신과 영혼은 이 리의 실현체인 만큼 그 속에 다소 조상 생시와 유관한 정신과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상채(謝上蔡)는,

음과 양이 서로 합하여 정(精)이 있고, 형기가 분리되어 귀(鬼)가 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되고 이것을 섬기는 자는 어질게 되는 것이다. 인(仁)과 지(智)를 미루어 합하는 자가 사전(祀典)을 제작할 수 있다.²⁷⁾

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조상과 후손과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자연의 기와 나와의 기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제례에 상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4. 내세관

1) 유교의 이승과 저승

『논어』에서는

살아 있을 때에도 예로서 섬기고, 죽어서 장사지낼 때에도

27) 『性理大全』 卷 28-22, “上蔡謝氏曰: 陰陽交而有神, 形氣離而有鬼. 知此者爲智事此者爲仁, 推仁智之合者可以制祀典.”

예로서 장사지내고, 그를 제사지낼 때에도 예로서 하라.²⁸⁾

고 하였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른 바 효도이다. 효도의 실천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교 문화에서 매우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계승과 존속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윤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윤리적 표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어져 유교의 내세관을 정초지워 준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칠 것이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²⁹⁾

또 공자와 자로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우리는 유교의 내세관을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을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했다. ‘아직 사람을 섬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감히 죽음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니, 대답했다.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³⁰⁾

주자는 “생각컨대 저승(幽)과 이승(明), 삶(生)과 죽음(死)은 처음부터 다른 이치(二理)가 아니지만 다만 배움에는 순서가 있어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공자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³¹⁾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이도 “밤과 낮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의 도리이다. 삶의 도리를 알면 죽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 섬기는 도리

28) 『論語』「爲政」-5,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29) 『周易』「文言」,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30) 『論語』「先進」-11,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

31) 『論語』「先進」-11의 朱子 註, “蓋幽明終始, 初無二理, 但學之有序, 不可躐等. 故夫子告之如此.”

를 다하면 귀신 섬기는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것이다.”³²⁾라고 하였다.

여기서 ‘삶과 죽음은 처음부터 다른 이치가 아니다’라든지 ‘낮과 밤의 도리가 같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변화 과정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나의 실재성은 낮처럼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한 있는 것일 뿐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암흑으로 돌아가듯이 나의 존재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의 예를 통해서 좀더 알아 볼 수 있다.

증자가 질병이 나자 맹경자가 문병하였는데, 증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새가 죽을 즈음에는 그 우는 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즈음에는 그 말이 착하다.’³³⁾

이것은 새와 사람이 죽을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비교한 말이다. 새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슬픈 것은 야성으로서 새의 본성이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는 것은 지성으로서 사람의 본성이다.

이것을 지적하여 주자는 “새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슬프지만 사람은 끝에 가서는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말이 착하다.”³⁴⁾라고 보았다. 주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자신을 반성하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다. 이것이 곧 지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성리학에서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하지는 않는다.

32) 『論語』「先進」-11의 朱子 註, “程子曰 晝夜者, 死生之道也, 知生之道 則 知死知道, 則死入之道 則盡事鬼之道, 死生人事, 一而二, 二而一者也.”

33) 『論語』「泰伯」- 4.

34) 『論語』「泰伯」- 4, 朱子 註.

2) 생명과학과 유교의 생사문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에 의해 크게 영향을 입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태어나 조용히 죽기도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되었다.³⁵⁾ 이러한 현실에 대한 유교적 입장은 어떤 것일까. 『논어』의 다음 구절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마우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들 형이나 동생이 있기 마련인데 나만 홀로 없다’ (그 소리를 들은) 자하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한 수 거 든다.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죽음과 삶은 운명에 달려 있고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출세는 하늘에 달려 있다. 군자란 신중하게 처신하여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사귀면서 공손하고 예의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나의 형이고 동생인 셈이지. 군자가 되려고 하면서 어찌 형이나 동생이 없다고 근심하겠는가?’³⁶⁾

이 구절은 물론 뒷날 ‘사해동포’, ‘사해형제’라는 말의 출처가 된다. 따라서 오늘날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기이식문제 등에 관해 유교가 전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사생유명(死生有命), 부귀재천(富貴在天)’이라는 구절이다.

사생유명(死生有命), 즉 인간의 삶과 죽음은 천명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과학, 유전자 복제,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인간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지 않는다는 하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생유명이라

35) 신정근, 『동양 철학의 유혹』, 이학사, 2002, 378~379쪽.

36) 『論語』「顏淵」5, “人皆有兄弟. 我獨亡. 子夏曰 商聞之矣. 死生有命 富貴在天. 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

는 말도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부귀재천(富貴在天)이라는 말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출세가 천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또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각고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³⁷⁾

5. 결론

이상 유교의 영혼관을 성리학적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보았다. 그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영혼과 정신이 사람의 본질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주요 근본 요소라고 주장한다.

특히 고대 중국인들은 영혼을 ‘氣’라고 했다. ‘氣’는 ‘氣’의 원형문자이다. 이것은 구름 같은 것이 뭉개뭉개 떠올라가는 형상이다. 사람의 호흡 곧 기식(氣息)도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사는 호흡 즉 기식(氣息)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되기 때문에 호흡의 작용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 영혼은 이러한 영력(靈力)이 인체에 머물고 있을 때는 활동할 수 있지만 한 번 사라지면 본체인 기로 환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³⁸⁾

유교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면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유교에서 영혼의 문제는 항상 귀신과 같이 논의되어 왔다. 그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곧 귀신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37) 신정근, 『동양철학의 유혹』, 이학사, 2002, 378~380쪽.

38) 朴屍義, 「고대인의 귀신관과 국문학」, 『인문논집』 제8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67, 9쪽.

2) 사람은 기를 가지고 있다. 그 기는 정(精)과 기(氣)와 신(神)으로 설명되는데, 그 기능으로 말하면 혼백(魂魄)이다. 이것들은 기가 다할 때까지 사람 속에서 존속하다가 사람의 기가 다하게 되면 혼은 양으로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음으로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혼백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고 한다. 죽는다는 것은 기의 차원에서 보면 흩어지는 것일 따름이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게 마련이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처럼 영혼이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혼은 뭉쳐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며, 백도 뭉쳐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혼백은 흩어져서 각각 하늘과 땅으로 가는 것이므로 개체는 없어진다.

3) 효도의 실천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교 문화에서 매우 강조되었다. 그것은 생명의 계승과 존속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윤리적 표현이다. 주자는 저승(幽)과 이승(明), 삶(生)과 죽음(死)은 처음부터 다른 이치(二理)가 아니지만 다만 배움에는 순서가 있어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생과 사에 대해서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고 생각하였다.

4) 유교는 '사해동포' 주의를 주창한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이식 등에 관해 유교가 전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주요어 : 영혼(靈魂), 귀신(鬼神), 정(精), 기(氣), 신(神), 죽음, 내세(來世).

참고문헌

『論語』

『性理大全』

『二程全書』

유인희, 『주자철학과 중국철학』, 범학사, 1980.

『石堂論叢』 제29집,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세종문화사, 2000.

신정근, 『동양철학의 유혹』, 이학사, 2002.

김수청, 「죽음에의 접근방법」, 『석당논총』 34집,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4.

유명종, 「유교와 도교의 생명관」, 『석당논총』 33집,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3.

유인희, 「인간적 문화에서의 영생」,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 2001.

조남욱, 「유가 육신관의 심층적 이해」, 『한국민족문화』 24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사자에 대한 유교적 사고방식」, 『석당논총』 34집,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4.

최두식 외, 「한국인의 죽음관」, 『석당논총』 29호,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0.

朴晟義, 「고대인의 鬼神觀과 國文學」, 『인문논집』 제8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67.

Abstract

Depth Study on the View Point of Soul in Confucianism

Kim, Soo-Chung

This thesis is making a depth study in Chines classic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Confucian view of the body, soul and death. The results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very interesting matter whether or not confucianest are interested in the eternal life and soul after bodily death.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One is the immortality of my soul or mind that keep on living in the next after this world. The other is the immortality of my reputation that will remain in the memory of my family and all the people who had ever known me even though my life is brought to an end.

Confucianists do not only have concern about the former, but also deny it. The confucianist point of view about body and death is neither theistic and ontological one to insist on the immortality of soul, nor materialistic and biological one to admit the end of life.

For confucianists, body is a cohesion of soul(energy), death is a dispersion of soul(energy).

Key words : soul(spirit), a departed soul, sprite, ether(chi) god, death, the future life.

논문투고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9일

게재결정일 : 4월 18일